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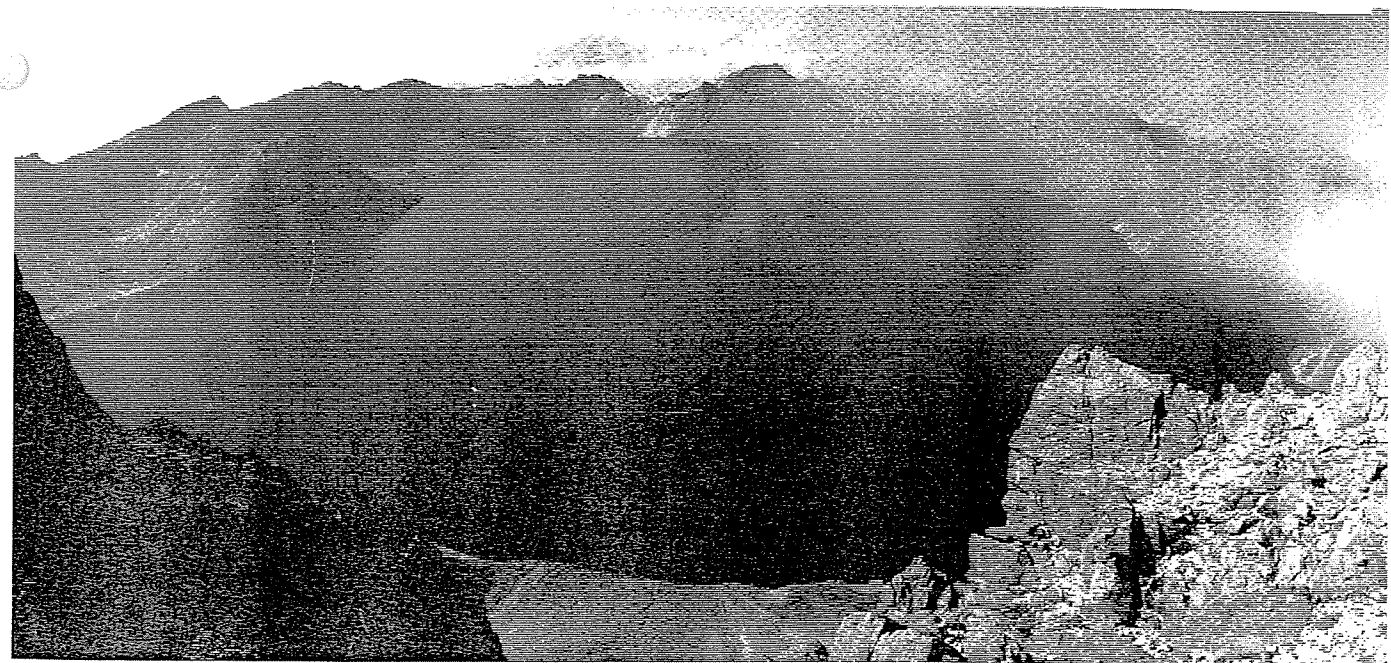
천지인문

天池人文

~我々が考え、我々が実行し、我々が支援し、我々の夢を実現する~

CHONJI CULTURE

Vol.3 No.2 1999年6月号 総第25期



天池倶楽部 発行

CONTENTS / 目录 / 목차 / 目次

巻頭エッセイ	1
현시기 민족사회변화특점과 민족교육발전구도에 대하여	2
天池人物 (1)	5
한국, 중국, 일본국적의 5인조 댄스그룹 서클	6
どうなる? 日本のマルチメディア	8
만화 오라버니	10
酒飲みの凱歌	12
21世紀に向けてのインターネット革命 孫正義	14
日・中・韓対照言語研究会 会員募集	21
「天池人文」独立案	22
賛助会員募集のご案内	23
1999年会費、「天池人文」購読料納付者名簿	24
天池倶楽部第52回定例会通知	25

二兎を追うことなかれ

李 東哲 (吉林)

「二兎を追う者は一兎をも得ず」ということわざがある。同時に二つのことをしようとすれば、どちらも成功しない、ということだ。大きな志を抱いて大業を成そうとする者にとっては決して忘れてはならない警句である。

ところが、人間には欲望がある。この欲望を常に抑制しないかぎり、いざとなればいつの間にか二兎、三兎を追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追って追って力を使い果たした時になってやっと気がついたところでもう挽回のしようがない。

振り返ってみれば、私も正に二兎、三兎を追ったお陰で何事をも成さぬまま、人生において最も大切な三十代を日本で過ごしてしまった。悔しくて悔しくてならないが、いくら齒軋りしたって三十代にはもはや戻れない。

正直言って私の来日の目的はお金目当てでもなければ(今のようない金銭感覚があまりなかったというのが正直な話だろう)、いい環境で楽な暮らしをしようとするものでもなかった。たまたま中国の大学で日本語を専攻したので本場の日本語に触れ、もう少し深みのある専門知識を学び、中国の日本語教育に役立てたいというのが当時の考えだった。だからもともと早く日本に来られる条件が整ったにもかかわらず、急ぐことはしなかった。もちろん日本で十年以上も暮らすことになろうとは思わなかった。

来日したのは三十代はじめだったので夢は限りなく大きかった。また必ず世人を驚かすような大業を成せると過信した。そこで中国で使い慣れた辞書やら語学専門書やらを段ボール箱二つにぎっしり詰め込んで持ってきた。また、必ず一般のサラリーマンと同じように稼いで家族を養いながら、学問もすると心密かに決意した。韓国の故朴大統領ではないが、「やればできる」「人ができるのなら私だってできる」という意気込みがあった。

しかし、神様は一人の人だけに無限のパワーを賦与してくれはしなかった。最初は確かに人並みにお金も稼げて大学院にも通えた。だが、今になって気がついたが、そもそも両立は無理な話だった。大学院には通っているものの、本を読む時間がなくて勉強とは名ばかりのものとなってしまう。レポートなど作成する時間がなかったりすると、いつも「吃老本」して中国にいる時に発表した論文を適当に手直ししたり、訳したりしてゼミで発表した。結局修士論文は顔が赤くなるくらい、いい加減なものを提出してしまい、とにかく修了はさせてもらった。その後もすでに学問を続けるのは無理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国立国語研究所に籍を置いたり、大学院の博士課程に入ったりしたが、まともな論文一本も書けないまま、金だけ数百万円をつぎ込み、最終的には高額授業料が支払えなくなると、中途下車を余儀なくされたのだった。

人間の能力にはやはり眼界があり、聖人でさえ「二兎を追う」ことに警鐘をならしているのに、いわんや凡人が十年近くも気付かずこんな無謀なことをやり続けたとは馬鹿の骨頂である。

大事を成そうとする志のある人であるなら、ゆめゆめ二兎を追うことがないようにしてもらいたいものだ。

현시기 민족사회변화특점과 민족교육발전구도에 대하여

남일성

오늘 세계는 갈수록 거대하고도 심각한 변화를 겪고있다. 그중에서 과학기술과 상품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민족간, 국가간의 상호래왕과 상호의존은 금세기 후반기의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성세와 보루를 쌓고 상호간의 래왕과 접촉을 경계하던 시대, 자급자족과 현상유지에 만족하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속에서 실시된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은 우리나라 각 민족 인민들의 생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생산의 상품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은 전반 사회구조 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방식, 행위방식, 가치관념과 그 추구에 이르기까지 충격과 변화를 이룩했는바 그것이 우리민족 성원들에게 가져다준 영향 역시 그 어느 시대에 비길수없으리만큼 심각하다. 그중에서 우리민족 교육발전에 직접 관계되는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념의 변화이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한 민족으로서 례의와 의리에 매우 밝았다. 하여 예로부터 장사같은것에 종사하는 것을 천한 일, 낮이 깎이는 일로 간주하였다. 더구나 그것은 《장사군 제에비 속인다》는 속담과 같이 그러

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저 자기 리속만을 채우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장사군을 [장사치]라고 멸시하게 된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이러한 전통적 관념에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현재 우리민족 성원들중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고있다. 매하구시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족 농호 5, 105세대 가운데서 1992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1, 278호 즉 총수의 4분의1에 달하는 농호가 촌을 떠나 도시에 들어가 잔지장사를 하거나 식당등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수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3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의 적지않은 사람들은 종전에 [신성]하다고 여겼던 직업마저 버리고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낮은 수입에 의거하여 살던데로부터 보다 높은생활방식, 의식구조, 문화생활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관념상의 일체 전변이다.

둘째, 인구의 이동이다.

개혁개방후 상품경제의 발전과 함께 한 지역에 갇혀살던 우리민족 성원들중에서 지역적이동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경제가 발전하지못한 지구에서 발전한 지구로, 변강에서 내지로, 농촌에서 도시로 류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경제생활이 어렵고 편벽한 산골일수록 더욱 심하다. 룡

정시 용신향 양목촌은 향중에서도 가장 편벽한 촌의 하나로서 1982년까지도 5개 마을 60호 농호에 257명의 인구가 살고있었는데 1992년에 이르러서는 2개 마을에 35호 농호 126명의 인구밖에 남지않고 그외는 모두 이사하였다.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에 흑룡강성의 조선족마을 499개 가운데서 226개 마을의 인구가 현저히 줄었는데 그중 오상시 농촌만 하더라도 8, 000여명이나 이사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많은 인구이동은 건국후 있어본적 없다.

셋째, 인구분포의 변화이다.

앞에서 말한것과 같은 인구이동으로 하여 우리민족 성원들의 지역적 분포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더욱 넓은 범위로의 산재이다. 8. 15해방후로부터 70년대말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땅이 넓고 인종이 적은 곳에 농민들을 조직동원하여 이주시켰고 개별적으로 일부 농민들이 타곳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인수가 많지 않았고 그것도 주로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으로서 동북3성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개방후의 인구이동은 그 성질로 말하면 그 대부분이 개별적 이동이고 또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는 농촌이거나 작은 향과 진에서 도시로의 이동이고 그 범위도 동북3성을 벗어나

관내의 대, 중도시에까지 널리 미치고 있다. 북경, 천진은 물론, 제남, 상해, 하문, 광주, 무한, 성도등 도시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갈수록 이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상대적집중이다. 우리민족 성원들이 넓은 범위로 산재되면서도 또 일부 지역에 상대적집중이 나타나고 있다. 례하면 관내의 대도시인 북경과 천진 그리고 연해개방도시인 위해, 청도, 연대등지에 조선족들이 점차 많이 집중되고 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사이에 북경, 천진 그리고 하북성 도시들에 들어간 우리 조선족동포가 근 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북경시만 하더라도 구곳에 진출한 조선족이 4, 5만명이나 되고 위해에는 27, 000명, 청도에는 1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민족 성원들이 점차 집중되고 있는 곳은 주로 발해만 일대와 그 주변 지역인데 그것은 한국기업인들이거나 우리 중국조선족 기업인들이 그러한 곳에 기업을 많이 꾸리고 있는것과도 직접 관계된다. 이와 동시에 원래 조선족집거구의 도시들과 잡거지구의 도시들에도 조선족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개혁개방후 연변은 원래의 2개도시로부터 6개시로 발전하였고 연결시만 하더라도 80년대 중반부터 매년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만명이상을 헤아리는데 그중 다수는 바로 조선족이다 그리고 동북3성의 심양, 대련, 장

춘, 길림, 목단강시등 대, 중도시와 기타 도시들에도 조선족 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다른 한가지는 농촌인구의 감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많이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 더 말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시기 우리민족 성원들의 관념상의 변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르는 우리민족 성원들의 이동 및 그 특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 향촌사회로부터 도시사회로의 과도를 반영해 주고 있다. (다음호로 이어짐)

アルバイトを募集します

時間帯 : 9 : 30 ~ 3 : 00

職 種 : 皿洗い

資 格 : 体力のある男性

アルバイトを求めています

時間帯 : 午前あるいは午後 6 : 00 以降

女 性 : 23 歳 (日本語学校の就学生)

* 日本語が多少話せる

連絡先 : 韓学鋒 電話/FAX : 0486-52-4033

または、天池人文雑誌社

電話 : 03-3592-9005

FAX : 03-3592-9064

날말맞추기 현상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가로 방향 열쇠〉

- 1950년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 000전쟁.
- 월·화·수·목·금·0요일.
-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물건을 엮어두기 위해 까치발을 받치어 벽에 달아놓은 널빤지. 선이.
- 일정기간의 근로·사업 등에서 얻는 수입이나 이익.
- 속이 차서 실속있는 것을 말할. 00하다.
-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대학을 갈 때 필기시험과 함께 치르는 시험.
- 잘못 심판함. 0심.
- 몸과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함. 충0.
- 여럿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일. 회0.
- 봄철의 날씨. '내 인생의 00은 간다'라는 말이 있음.
- 어느 방면에서 그와 견줄만한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난 자. 00자.
- 날것한 물건의 세로 부분. 즉 두꺼운 정도를 말할.
- 찬미의 뜻을 표현 노래. 조국00. 찬송가.
- 호령이나 헛된 위협으로 으르다. 0포를 놓다.
- 입을 오르려 간드러지게 웃는 모양이나 소리.
- 입가에 살짝 짓는 웃음.
- 지성을 지닌 사람.
-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세로 방향 열쇠〉

- 육군사관학교의 준말.
- 이발을 하는 집.
- 전기를 통하는 도체로 쓰는 금속선. 전0.
- 음식 그릇 등을 받쳐드는 데 씀.
- 그 땅에서 나는 종자. 0종.
- 한 조각 붉은 마음. 곧 한결같은 참된 정성. 0편0심.
- 얻음과 잃음, 혹은 이익과 손실. 0실.
- 몸소 경험함.
- 음력 5월 5일, 이날 남자는 씨름을 하고, 여자는 그네뛰는 풍속이 있음.
- 6월 6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현00.
- 어떤 일을 해 나아가는데 가장 알맞은 때.
- 맛이나 요리 솜씨를 시험하기 위해 먹어 봄.
-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이룸. 어른.
- 복숭아와 비슷하나 좀 작고 신맛이 나는 열매. 자0.
- 미국 LA 다저팀의 투수로 명성을 이고 있는 한국인 야구선수. 박00.
- 한민족을 한마음으로 이어주는 메아리. 본지의 책 제목.
- 다섯 손가락 중에서 가장 굵은 첫째 손가락.
- 대포를 쏠 때 나는 소리. 포0.
- 사면이 육지로 싸이고 물이 곧 곳. 호0.
-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기혼의 반대.

1999년 3월호 날말맞추기 정답 및 당첨자 명단

명	모	삼	천	성	인	군	자
목			하	남			신
적			무	지	개		김
		면	적	비	행	기	
서	을			이	방		비
	름		순	불	빔		
식	도	꽃	신	명	발		
목				영	순		
일	기	에	보	세	중	대	왕

- ① 이여군 : 118003 中國 遼寧省 丹東市 丹東師範高等專科學校 97 韓語班
- ② 오춘화 : 300204 中國 天津市 河西區 馬場道 117號 天津外國語大學 韓國語學科
- ③ 임 일 : 250100 中國 山東省 山東大學 外國語學院 235#
- ④ 고충영 : 250100 中國 山東省 濟南市 山東大學 外國語學院 東語班 韓語 238#
- ⑤ 심 리 : 116002 中國 遼寧省 大連市 中山區 大連外國語學院 97韓日 65#
- ⑥ 김성주 : 中國 吉林省 延吉市 愛丹路 28-7 中國朝鮮族教育雜誌社
- ⑦ 왕원주 : Peking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Beijing 100871, P. R. China
- ⑧ 양화은 : 116002 中國 遼寧省 大連市 中山區 大連外國語學院 65#
- ⑨ 권 철 : 中國 吉林省 延吉市 公園路105號 延邊大學朝鮮語文學研究所
- ⑩ 박봉래 : 러시아 캄차트스카야 오블라스트 코라드 델리자보 5거리 옴스카야 19

- ❖ 응모요령 : 정답을 적어 '고국소식'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10명을 추첨,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평화문사서함 1039호 (주)연합뉴스 '고국소식'
❖ 마감 : 1999년 8월 10일 ❖ 발표 : 1999년 '고국소식' 9월호

天池人物 (1)

韓春錫 (はん・ちゅんし) 慶應義塾大学医学部生理学教室 助手 (発生神経生理学>>)
医学博士

【略歴】 1960 年中国吉林省龍井市に生まれ。1979 年吉林省和龍県第2 高等学校卒業、同年白求恩医科大学に入学。1984 年延辺婦幼保健病院 (小児科助手) に就職、1986 年延辺医学院附屬病院に (小児科助手) 転職。1988 年白求恩医科大学大学院修士課程に入学、1991 年卒業後、白求恩医科大学第2 病院に (小児科講師) 就職。1993 年私費留学生として来日、半年間の慶應義塾大学日本語別科コースを経て 1994 年慶應義塾大学大学院生理系博士課程に入学。大学院に入学して最初の一年間は潮田奨学金と辻国際アジア奨学金を獲得し、2 年目よりは文部省奨学金を獲得した。1998 年4 月卒業後現職に就職。

研究テーマと抱負 :

研究テーマは大脳新皮質の形成異常とてんかん発作に関する研究。抱負は将来神経専門研究所或いは病院を創立すること。

【趣味】 テレビを見ること、特に歴史のドキュメンタリー番組に興味を持っている。

【宗教】 宗教について詳しい理解はないながら神社やお寺をまわり続け、神様の種類には関係なしでお祈りをする。

【好きな言葉】 人生は旅。旅の風景を見るのが最も楽しい。

【好きな友達】 お互いに信頼できる人。

【自慢すること】 幸せな家族。

天池倶楽部の皆様と交流を楽しんでお待ちしております。

最後、天池倶楽部の留学生に送るアドバイス : 情報と資格は奨学金。

e-mail : han@mc.med.

keio.ac.jp

〒160-8582 東京都新宿

区信濃町 35 号

慶應義塾大学生理学教

室 4F 03-3353-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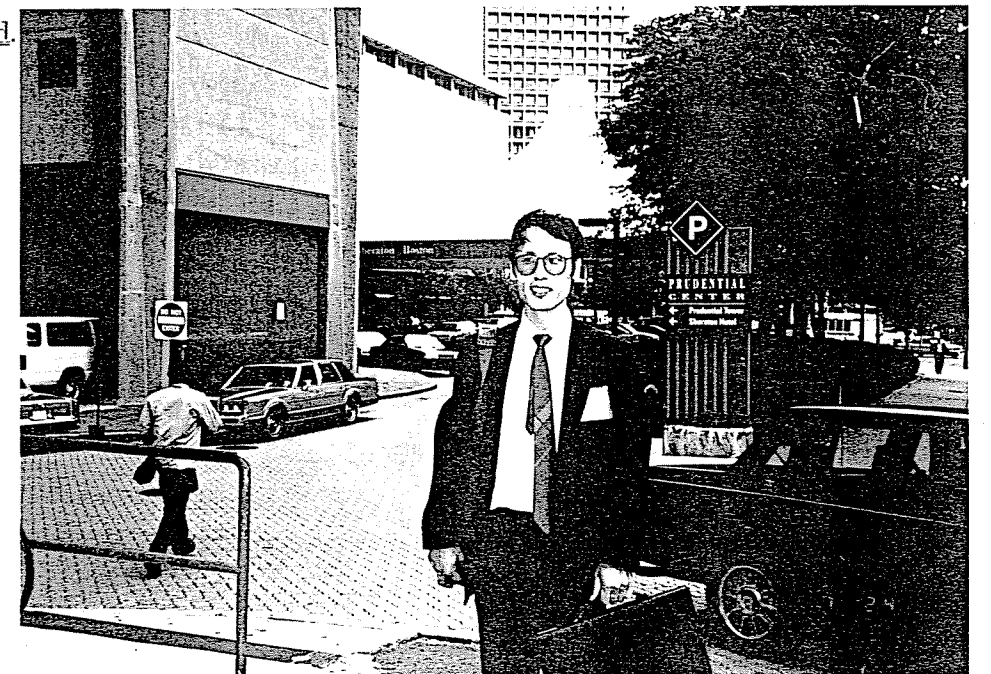
ext 2613

Fax : 03-3357-5445

E-mail : han@mc.

med.keio.ac.jp

携帯 : 090-9808-3056



アメリカ・ボストンにて

한국·중국·일본 국적의 5인조 댄스그룹

서클

한국 에이즈 퇴치 홍보 대사로 활동



한국·중국·일본의 10대 소녀 5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그룹 '서클(CIRCLE)'이 유엔 한국대표부와 한국 에이즈퇴치연맹이 선정한 '한국 에이즈(AIDS) 퇴치 홍보 대사'로 뽑혔다. 서클은 앞으로 발표할 음반에도 에이즈로 사망한 영국 록그룹 '퀸'의 가수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홀리데이'를 편곡한 에이즈 퇴치 노래를 수록할 예정이다. 2집 음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서클을 만났다.

한 국인 2명과 일본인 2명, 중국인 1명 등 3개 국의 10대 소녀 5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그룹 '서클(CIRCLE)'. 한국의 이지현(16세)·한보람(15세), 일본의 오가와 아이코(17세)·에구찌 유카(15세), 중국계 일본소녀 바이슈에(13세)가 그들이다. 미소녀들로 이루어진 서클은 지난해 8월 한국과 일본 대중음악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양국의 음반시장을 석권하겠다는 목표 표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한·일 합작품으로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들은 한국의 조선음향과 일본의 콜롬비아 레코드사, 제작자 소마 가즈히코가 발굴해낸 댄스그룹이다. 이들 '다섯 소녀'가 서클이라는 이름으

로 모인 건 지난 1997년 여름. 조선음향과 소마 오피스는 양국의 문화교류와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 아이돌 그룹을 제작기로 하고 공개 오디션을 실시했다. 엄격한 시험을 거쳐 뽑힌 이들은 1년간 혹독한 훈련을 거듭했다. 현해탄을 오가는 활동을 위해 양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노래와 춤을 익혔다. 각자의 색깔을 갖추기 위한 이미지 만들기도 뒤따랐다. 서클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조선음향과 소마 오피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소마 오피스의 대표 소마 가즈히코는 70년대 전설적인 일본의 유명한 그룹 '핑크레이디(PINK LADY)'의 제작자다. 양국의 제작사는 서클의 '상품' 가치를 1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콜롬비아 레코드측에서는 일본에서만 수백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서클 바람이 불었다. 타이틀곡인 '스위트 러브'(한국 제목은 '아이 러브 유')는 지난해 8월 방송을 시작한 니혼TV의 청소년 드라마 삽입곡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탤런트·MC·모델 등으로도 섭외가 쏟아졌다. 서클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다. 서클은 올해 또다시 도쿄·나고야·요코하마 등지를 돌며 '영업'(프로모션 투어의 현지용어)에 나설 예정이다. 다시 한번 서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다부진 각오다.

서클은 지난해 12월 12일 '99 아시아 라이브 드림 상하이'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단 하루의 공연이었지만 서클에게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15개 국에서 17개팀

이 참가했는데 이날 서클은 '스위티스트 러브(Sweetest Love)'를 불러 어리고 감직한 팀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아시아 최고를 꿈꾼다

지난해 보름짜리 비자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바쁘게 활동했던 서클은 올해부터는 1년짜리 비자를 취득, 좀더 활발한 공연을 벌이고 있다. 서클은 올해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와 한국 에이즈퇴치연맹이 선정한 '한국 에이즈 퇴치 홍보 대사'로 뽑혀 지난 3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한국 에이즈 퇴치 홍보 대사 선정은 유엔 한국대표부가 '듣고 배우고 살자'는 표어로 1999년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김정순)이 위촉하는 명예직이다. 연맹 관계자는 "서클은 이미지가 깨끗하고 한·중·일의 초·중·고생 소녀들이 모였다는 점을 평가받아 홍보대사에 선정됐다"며 "이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에이즈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클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함께 포스터, 지하철광고, TV 광고, 비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에이즈예방 홍보와 함께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캠페인 등 다양한 에이즈 예방활동을 펼

치고 있다. 서클은 앞으로 발표할 2집 앨범에도 에이즈로 사망한 영국 록그룹 '퀸'의 가수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홀리데이'를 편곡한 에이즈 퇴치 노래를 수록할 예정이다.

서클은 "1년 정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공연하다보니 양국의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음악적인 차이로 일본의 댄스음악은 편안한 진행이 특징인데 반해 우리나라 팬들은 강하고 빠른 노래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서클의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스위티스트 러브'는 경쾌한 리듬과 쉬운 멜로디가 귀에 쏙 들어와 단순한 구성으로 일본에서 반응이 더 좋았다. 또 하나는 무대에서의 안무와 의상도 취향이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팬이 보기에 촌스러운 듯한 옷이 바다 건너에선 유행물결이다. 그래서 양국에 코디네이터를 따로 두었다.

앞으로 서클은 이런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할 태세다. 일본에서 한창 2집 음반작업을 하고 있는 서클은 여름쯤에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클은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대만 등지에도 진출할 꿈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래실력까지 겸비한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하려는 서클의 선전이 기대된다. 

글 / 최영임 재외동포부 기자·사진 / 유 진 재외동포부 기자



이지현 : 일신동고등학교 1학년. 취미 음악감상·잡자기, 특기 수영. 존경하는 인물 신사임당, 좋아하는 가수 쉐린 디온. 뽀짝지 말삼히 할 계획이다.
한보람 : 송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취미 노래·요리·춤, 특기 한국무용. 존경하는 인물 부모님, 좋아하는 가수 신승훈.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수 되고 싶다.
오가와 아이코 : 사립다마가와학원 1학년. 취미 기타·쇼핑, 특기 피아노·퍼리. 존경하는 인물 얼마, 좋아하는 가수 글레이(GLAY).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에구찌 유카 : 호도기야중학교 3학년. 취미 요리, 특기 리듬체조댄스. 존경하는 인물 부모님, 좋아하는 가수 다이아나 킹. 지금보다 훨씬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다.
바이슈에 : 중국계 일본인 국적은 중국. 나가노시야소학교 6학년. 취미 노래방 가는 것, 특기 춤. 존경하는 인물 아무르나 미에와 얼마. 좋아하는 가수 아무르나미에 노래와 춤 열심히 하고 싶다.

どうなるか日本のマルチメディ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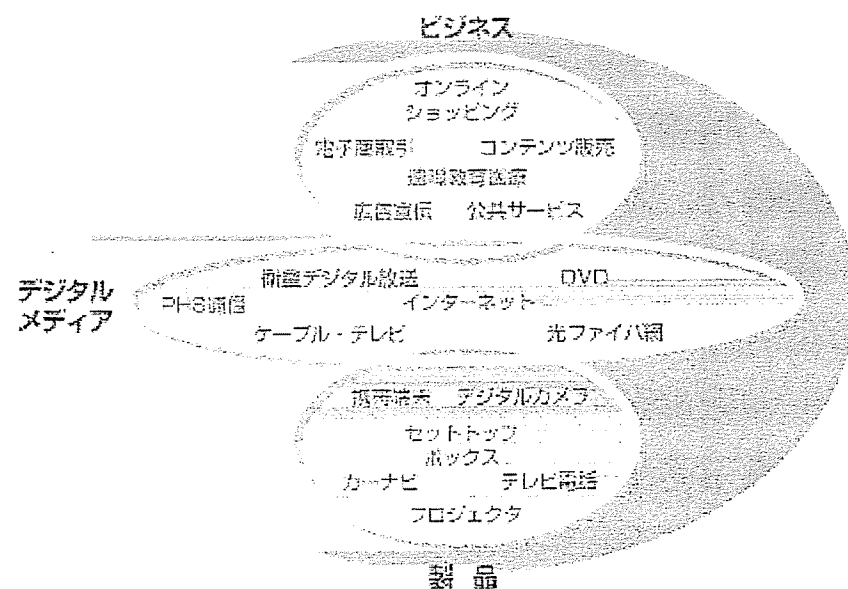
ここまで拡大した市場サイズ

What's multimedia?

日本でもついにマルチメディアの市場が広がってきた。そ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やはり「インターネット」である。ネットワークを使って様々な情報を自由に扱える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したことにより、美しい画像や音声を含むマルチメディアの情報が我々の身近なものになった。いまやインターネットの利用者は日本国内で 1000 万人を突破したと言われており、まさにオープンな情報伝達媒体として“デジタル・メディア”の力を大いに発揮しつつある。

マルチメディアの利点を生かした新しいビジネスも続々と登場している。中でも世界的にブームになっているのが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た EC（電子商取引）である。企業間の商取引から、一般の消費者を対象にした通信販売にいたるまで、多種多様な商売がインターネット上へ移行しつつある。米国では「2002 年までに 3000 億ドル（約 40 兆円）の商取引が EC になる」との予測を商務省が発表しており、同様に EC の波は日本や欧州にも押し寄せている。日本では文具などのオフィス用品だけでも、1 兆円の市場が EC によって誕生すると見られている。

インターネットに続いて、衛星などを使った「デジタル放送」が一般家庭に浸透し始めた。インターネットよりも速く、大量の情報を送ることができるデジタル放送の登場によって、マルチメディアの世界はいっそう進化していく。電子新聞をはじめとして、家庭にしながら各種の情報サービスやエンタテインメント・サービスを手軽に受けられるようになる。さらに無線でもデジタル通信が可能になり、携帯電話やカーナビまでがマルチメディアの受信端末に生まれ変わろうとしている。1 人に 1 台どころか、「1 人に 3 台、4 台のマルチメディア端末」が当たり前になる日は目前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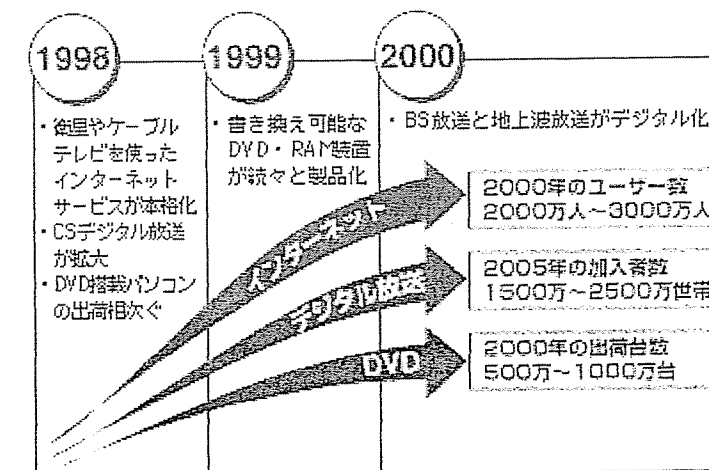


マルチメディアの波は一步一步、家庭に迫っている。最近では「インターネット冷蔵庫」なるものまで登場してきた。家庭の電器製品が次々にデジタル機器へ生まれ変わり、それに合わせて家庭の中と外を結ぶ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ていく。その要になるのが「セットトップ・ボックス」と呼ばれる小型の機械である。通常テレビに接続して使われるセットトップ・ボックスは、デジタル放送の受信機能のほか、インターネットへの接続、IC カードの読み取り、さ

らには内部のディスクに大量のデジタル・データを記憶する機能まで持つ。まさに家庭におけるマルチメディアの中核になる存在だ。このためソニーや松下電器産業、マイクロソフトなど、世界の巨大企業が“次世代のホーム・エレクトロニクス”の本命と見てセットトップ・ボックスの開発に躍起になっている。

セットトップ・ボックスを使った「デジタル・テレビ」が 2000 年から 2005 年にかけて家庭に浸透していくのは間違いない。日本でも衛星を使ったデジタル放送の加入者数が今年中に 100 万世帯に達する見込みだ。さらに 2000 年には現在の CS（通信衛星）に加えて BS（放送衛星）や地上波を使ったテレビ放送が相次いでデジタル化される。そうになると加入者数は一気に 1000 万世帯を突破するだろう。こうしてセットトップ・ボックスが普及することにより、デジタル放送だけでなくインターネットを含む様々なデジタル・メディアが家庭を取り巻くようになる。

膨大なデジタルの情報が家庭に舞い込んでくると、それを格納しておく機械が必要になってくる。そこで次なる記録メディアの本命と見られているのが DVD である。現在までに商品化されている DVD は、CD と同じ大きさのディスクに 2 時間の映画を記録できる。さらに 2000 年から 2001 年に登場する第 2 世代の DVD になると、記憶容量は 3 倍、映画で 6 時間分を記録できるようになる。この DVD は将来のセットトップ・ボックスにも内蔵されて、インターネットやデジタル放送で送られてきた情報を格納。それをテレビだけでなく冷蔵庫のスクリーンに映し出したり、あるいは無線で飛ばして携帯端末やカーナビに表示させることも可能になる。これは決して夢物語ではなく、2000 以降の早い時期に実現する話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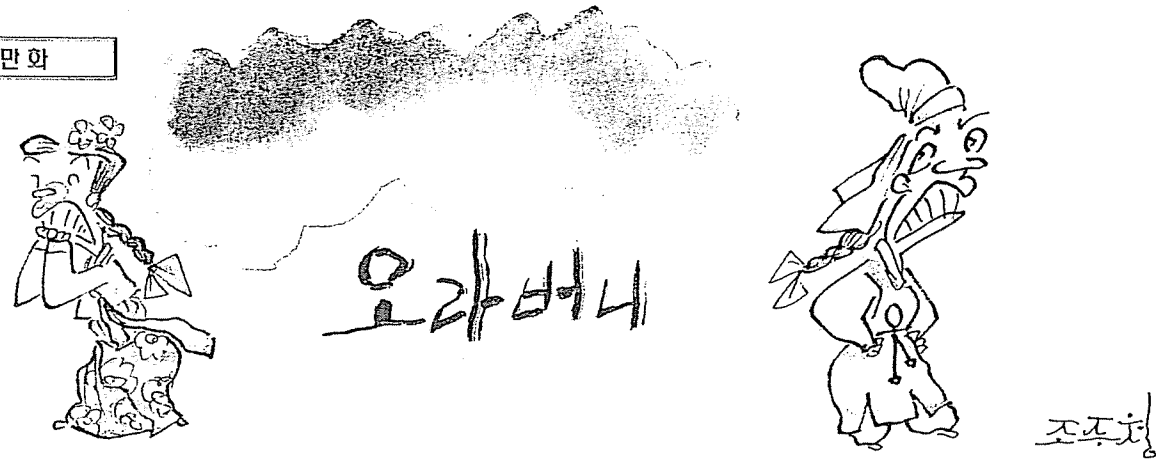
家庭が変われば、ビジネスも変わっていく。特にマルチメディアの進展で大きな影響を受けるのが、消費者向けのビジネスである。この 1 年で、日本でも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た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の市場が急速に拡大してきた。『日経マルチメディア』が約 5000 人の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を対象に実施した調査によれば、すでに半数近く（47.5%）の人が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を利用している。購入商品もパソコンから食料品、航空券のチケットや音楽 CD にいたるまで、様々な物がある。家庭やオフィスのパソコンからいつでも簡単に商品を買うことができ、しかも市販の価格より安い場合が多いことが、人気の理由である。

『日経マルチメディア』より

Comment:

今度、天池人文の編集部からコンピュータ関連コラムの編集の依頼を受けました。自分のキャリア、知識空間と責任を考えれば仕事の重さを感じましたが、21 世紀に欠かせない情報技術の勉強と伝播義務を考えれば躊躇なく依頼を受ける事にしました。コラムとしても全部自分が書くのではなく、インターネット、本、雑誌などメディアからの情報収集と自分の思想を交えて皆さんが皮膚で感じられる新鮮さとわかりやすいコラムに育てあげたいと思います。コラムの名前も考えた結果“デジタル革命”することにしました。なぜかと言うと、次に来る 21 世紀はコンピュータ技術者だけの世界ではなく、われわれ一人一人に密着な関係があり、大革命が起きる社会からです。

H. Song



만석꾼 부자 황첨지의 외아들
황관동은 서당에도 안 가고
벌써부터 찢렁패 뜯마니들을
데리고 다니며 주색잡기에 빠졌다.
어느날, 술이 거나하에 취해서
나루터로 가다가 알지 못하는
처녀를 희롱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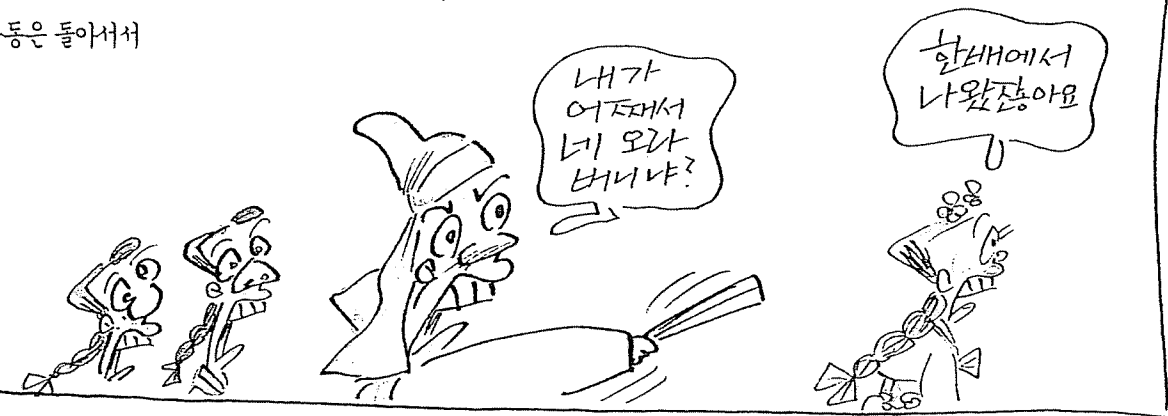
당돌한 처녀 되받아 치기를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헤어지며 그 아가씨 왈,



황관동은 돌아서서



알고보니 당돌한 그 처녀는
명월관에 새로 들어온
동기(童妓)였다.

황관동은 매일밤 명월관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난향의 머리를
올려 주려 하지만



난향은 짐색을 하고



이튿날부터 황관동은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려 3년 후에
장원급제를 하고,
어사화를 꽃고 금의환향하여
난향을 정실로 맞았다.



酒飲みの凱歌

凡人

私は、普段はあまり飲まないが、いざ飲むとなると、酔いつぶれるまで徹底的に飲む悪い癖を持っている。それも安物の焼酎ではなく、いつもビールだから酔いつぶれるまでに飲むには飲み代も決してばかにはならない。そこでビールが思う存分に飲める「食べ放題、飲み放題」によく行く。時間の制限はあっても一時間半猛ピッチで飲めば一応満足に飲めるから、決して損はしない。

ところで、ある日のこと、また何人かの酒飲み仲間？と飲み放題に行き、たらふく飲み食いしてから時間の余裕があったので二次会をやることにした。「お通し」代を取られるのが癪に触るから二次会はあまり好きではないが、その日はまだ飲み足りないような気がしたので渋々他の連中の後について行った。しかし、店に入る時はしんがりを務めたが、飲む時は他人に遅れを取るまいと立て続けに乾杯。その店を出る時はもう東西南北どころか、自分の足がどこに向かうかも知らないくらい泥酔した。でもいくらぐでんぐでんに酔っても家にはちゃんと帰れるものだから不思議である。そのためか、外で酒を飲んでも妻は別に心配する気配も見せない。

飲みおわると、終電車ぎりぎりの時間だったので京急蒲田まで行くと家まで行く乗り換えの電車はもうなくなっていた。八字を描きながら（酔っぱらいの歩き方を朝鮮語ではこう表現する）二十分くらい歩いてやっと家に着いた。ドアを開けて入ると、いつもの通り、食卓にはおかずが置いてあったが、まず私の酔眼に飛び込んできたのはトマトだった。そのトマトを見た瞬間、脳裏にインスピレーションが閃き、詩句が浮かんできた。その詩句があまりにも鮮明だったのでもはやコントロールが効かなくなった。服を脱ぐのもそこそこに床にちらかった紙と鉛筆を拾い、思い浮かぶままに一瀉千里に「詩」を書き綴った。おぼろげながらその「詩」はどこかの雑誌に投稿しても決して恥ずかしくない素晴らしい「詩」であるに違いないと思いながら。

そして翌朝、まだ酔いが醒めない眼をこすっていると、妻の弾んだ声が聞こえてきた。

「これ一体なんなの？全然読めないじゃないの。早く来て読んでちょうだい」

妻から渡された二枚もあるその「詩」を見た途端、私は自分の眼を疑った。自分で書いたのに何を書いたのか、まるっきり読めない。もう一度眼をこすってよく読んでみると、最初の一行と最後の一行だけやっと判読できた。妻もそれは読み取ったらしい。最初の一行と最後の一行はこうであった。

妻は眠っている

.....

待っているのは一さらのトマトのみ

読めなくなった「原稿」を見ながら悔しくてならなかったかったが、もう後の祭りだった。酔っ払った時にもう一度書けばいいと自分を慰めるしかなかった。しかし、そのもう

一度が二度と来なかった。その一事以来、帰るといつも寝ていた妻が寝ないで待ってくれたからだ。

ある日、素知らぬ顔で「こんな遅い時間なのに眠くないのか」と聞いたところ、「先に寝てまた詩を書かれると困るじゃないの」と笑いながら答えるのではないか。おかしくて、おかしくて今にも吹き出しそうになったが、妻の手前で不謹慎な振る舞いをしてせっかく勝ち取った「幸せ」をふいにしなくなかった。

素晴らしい詩が二度と書けなくなったのは残念がられるが、そのかわり、いくら遅く帰っても笑顔で迎えてくれる妻を見ると、心中凱歌を奏したくてうずうずする毎日である。

\$\$\$ 求職希望者を募集します \$\$\$ (招募想招工作的人)

当研究所留学生部では留学生の求職（正社員、嘱託社員、アルバイト、パート）に便宜をはかることを目的に、七月より留学生（就学生含む）に対する就職斡旋業務を開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当研究所事業部に求職登録をしていただいた方には仕事が入れば、登録表の記入に基づき、必要とする仕事を紹介してあげます。

●申込方法

当所指定の登記表に必要事項を記入し、登録費千円（1,000 円）を添えて申し込む。郵便または FAX で登録表を送っていただいてから、登録費は当所の指示にしたがって郵便振替用紙にて振り込んでいただきます。登録費は一年有効です。有効期間中に一回も仕事を紹介されない方には登録費を返金いたします。

●紹介方法

毎月一回雑誌で紹介すると同時に、申込者の求める仕事内容に基づき、電話、FAX または郵便で個人宛に連絡します。

●紹介料

紹介により就職が内定したら、紹介された方は当所に紹介手数料として、短期は（三ヶ月以内）二万円、長期は（三ヶ月以上）四万円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正社員、嘱託社員への就職が内定した方については職種、給与などを勘案し、紹介手数料をいただく。

日・中・韓語学研究所

〒103-0005 東京都港区西新橋 2-13-16 4F 電話:03-3592-9005

FAX:03-3592-9064

孫正義氏はたった十数年の間にソフトウェア開発で大成功を収め、今では日本は言うまでもなく、世界財界でもその名を知らない人がいないくらい有名な人物である。孫氏の情報産業革命における冷徹な思考は私たちに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氏の新春講演会の講演を「飛龍」誌より転載した。

編集部

21世紀へ向けてのインターネット革命

講師 孫正義氏
ソフトバンク株式会社 代表取締役社長



【略歴】
孫 正義（そん まさよし）
1957年（昭和32年）生まれ。
1980年カリフォルニア大学バークレイ校卒業後、1981年株式会社日本ソフトバンクを設立し、代表取締役社長に就任。
1990年ソフトバンク株式会社に社名変更し、現在に至る。

【団体経歴】
1990年7月社団法人日本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協会副会長に就任。

情報革命の四つのステージ

日頃から大変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皆様方、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まずお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新年の大変貴重なこのような機会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大川会長、またCSKグループの皆様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21世紀、もう説明するまでもなく、インターネットの時代がくるというように思っておるわけですが、どの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の時代がやってきて、それがわれわれの社会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また皆さんのビジネス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というような点について、私のかなり独断の部分が入っておるかと思いますが、

一緒に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まず、約20万年の人類の歴史のなかでいまわれわれがどのへんの位置に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認識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最初に、他の動物と同じように、人類も食べ物をいかに確実に、しかも安易に入手するかということで大変苦労していたわけですが、農業革命が起きて、その結果、それについては安心して飢えることなく生活でき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次に、筋肉の延長をさせるということで、産業革命があったわけです。自動車とか飛行機、あるいはその動力を使った結果、橋だとか道路などさまざまなものが造られ、家庭にも洗濯機、掃除機、エアコンが出現しました。

そして次に、われわれ人間の脳の力を飛躍的に拡大させる三番目の革命がやうてきたわけです。これが情報革命そのものです。この情報革命は、われわ

れの人間生活のさまざまなシーンに対して、最も大きなインパクトを与えます。

私なりの定義によりますと、情報革命には四つのステージがあります。

最初の二つとはアナログの情報です。次の二つはデジタルの情報です。まず最初にやってきたのがアナログのテクノロジーを使った情報の道具が世の中にどんどんと生まれてきたわけです。つまりテレビのテクノロジー、新聞を印刷するための印刷機械のテクノロジー、ラジオあるいは電話、これら全てはアナログのテクノロジーをベースとした道具が次々に生まれて発明されてきました。次のステージでは、この道具を道具として使ってサービスを提供する、アナログ情報サービスです。すなわち一番最初はアナログのテクノロジーを提供する産業、二番目はアナログサービス産業です。

そして三番目にやってきたのがデジタルの道具の産業です。デジタルとアナログの違いは何かというと、ひと言でいえばコンピュータを使うか使わないかです。最初にコンピュータを使わないで情報を伝達する道具が生まれて、サービスが生まれた。次にコンピュータを使ったものとしての道具が大いに繁栄する時代がやってきました。いわゆるIT産業です。

そして四番目に、まさにいまやってこうとしているのが、このデジタルの道具を道具として使って、サービスを提供する、デジタル情報サービス産業です。この四つのステージが、この順番でやってきているわけです。

急激に成長する情報産業

実は時価総額で見ると面白いことがわかります。それは何かといいますと、第2ステージのトップ10の会社の時価総額を、第1ステージのトップ10の会社と比べますと、完全に追い抜いた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さらに第3ステージの会社が第1と第2ステージの会社を、両方のトップ10を足した規模を超え

てしまいました。これは、大変なこと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わけです。

そしてついにこれからやってくるのが第4ステージです。私はこの第4ステージ、もしかしたら第1と第2と第3を足した規模を超えるぐらい大きくな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まさにこれはインターネットそのものを表わ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もう一つの事例としては、従来のアナログ・メディアのサービス・カンパニーの代表格であるCBSの時価総額の推移と、インターネットのサービス・カンパニーの代表格のうちのひとつAOLの対比ですが、テレビやラジオなど多様なメディアを展開しているCBSの時価総額を、AOLが一気に抜いてしまいました。おそらく今日現在、ヤフーもこのCBSを抜き去っています。

ご存じのように、ヤフーは3年前は社員がまだ15人でした。私どもソフトバンクがちょうど出資をした時ですが、この時、ヤフーは設立してまだ半年しか経っておりませんで、年商が2億円ぐらいで1億円ぐらいの赤字でした。この本当に小さな会社が、たった3年後の現在、時価総額でCBSをも抜いてしまうことを一体何人の方が想像できたでしょうか。あるいは仮に想像したとしても、心底信じられたであ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まさに時代は変わってきているのです。

従来の日本企業の時価総額のランキングをご紹介しますと、日本で時価総額が一番大きい会社はNTT、2番目がトヨタ自動車、3番目に最近ドコモさんが一気に入ってきました。4番目が東京三菱銀行、5番目が松下、6番目がホンダというように錚々たる企業が並んでいます。

ちょうど6年前、私どもソフトバンクは米国シスコ・システムズ社とジョイントベンチャーでシスコ・システムズの日本法人を作りましたが、この米国シスコ・システムズ社が先々月、日本最大の時価総額のNTTを抜きました。時価総額です。おそらく今後百年ぐらい、この順位はもう変わらないと、そういうふうに私は極端に思っております。そのくら

いシスコはこれからますます伸びます。資料ではNTTさんがいま13兆8000億円ぐらいですが、今日現在、シスコはもう18兆円ぐらい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日本の子供でもNTTという名前を知らない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何の仕事をしているのかを知らない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アメリカでフォード自動車、ゼネラルモーターズ、あるいはコカ・コーラが何をしている会社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人はほとんどいないと思います。でも、シスコが何をしているかを知らないと、これからの21世紀を生きいく上では大問題だ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なぜ大問題かといいますと、シスコという会社は、インターネットのバックボーンを作っている会社だからです。つまり5、6年前に私がなぜ「シスコ、シスコ」と大騒ぎして言っていたかといいますと、「これからはインターネットの革命がやってくる」と言いたかったわけなのです。まさにシスコは、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鉄道がやってくるとすれば、鉄道の線路を敷きまくっている会社です。あるいは鉄道の連結器を据えまくっている、連結器の設備を提供しているというのに相当するのがシスコです。つまり、インターネットの交差点全部をつなぐ役割をしているのがシスコです。

革命というのは、最初にバックボーンが急激に立ち上がるのです。次にそのバックボーンの上に乗っかってくるハードウェアのさまざまな機器、そしてソフトウェアの機器、あるいはインターネット・アクセスのサービス会社、そしてその次にそれを使ってサービスを提供するさまざまな会社が、どんどんその上で新たに生まれて進化し繁栄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順番でやってくるわけです。

時代の流れを シンプルに読み取る

先が読めない時代である、不確実性の時代であると言われます。本当にそうなのでしょうか。私はそう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仮に3か月後、1年後に何が起きるかを言い当てよう、株価がどうなるかを言い当てようという、これはなかなか大変な芸当です。しかしもっと離れて見ると、時代の流れというのは案外シンプルなものです。例えば、テレビが生まれた、そしてテレビは便利なものである、だからワッと広がる。あるいは「自動車は便利か便利でないか、人間に役に立つのか立たないのか」「電気は役に立つのか立たないのか」という問いに、「役に立つ」という答えがあれば、それはもう一直線に広がるのです。

皆さん、中国に出張してみてください。日本あるいはアメリカと中国の差をはっきりと自分の目で感じられると思います。まだ自動車の台数が少ない、電話の普及率が低い、電気の使われ方の用途が少ないと。でも、これはほぼ間違いなく電話の普及率は広がるだろう、クルマの普及率は広がるだろうと、予言者でなくても皆さんはご自分の体験から確信をもって断言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同じ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について、あるいはコンピュータ化の流れについても寸分も迷うことなく、シンプルに、人間にとって便利なものである、だから必ず広がると言えます。

インターネットに対して取り組むべきか取り組まざるべきか。あれはガラスの洞窟なのか何なのか、バブルなのか何なのか。もし寸分でも迷うことがあるとするならば、シンプルに考えてみていただきたい。自動車が便利のように、電話が便利のように、テレビが便利の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は間違いなく便利なものとして人間の社会生活に欠かせないものになります。だとするならば、人よりも遅れて取り組むよりも、少しでも早く取り組んだ者が勝つということです。

日本とアメリカは景気の差あるいは産業の力の差が、最近、みるみるうちに広がっているように私は感じています。そしてこの根底的な差は、コンピュータに対する投資、情報産業に対する投資が決定的な差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ITに対する民間の設備投資もそうですし、公共投資でダムだとか景気対策のために未だに道路を舗装していま

す。そんなお金があったら5%でも10%でもいいから、情報に対する投資をしたらどうか。政治家の方が、あるいは産業界のリーダーの方々が、もう少し物事をシンプルに大づかみで見ると、答は簡単だろうと思うのです。設備投資して、投資した結果のリターンが大きなものに投資するほうが絶対いいわけです。自分の会社で事業が伸びる部門と伸びない部門とあったら、どちらに投資するか。伸びるところに投資しなかったらその会社の明日はありません。国家も同様です。国のインフラとしてこういうものについてはやはり必ず半歩先取りしてやるべきだろう、日米にこれほど決定的な差がついてるというのは、私は大問題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

インターネットの 7段階活用

日本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利用者の数はまだまだ少ないですが、急速に増えていき、2010年頃には5割以上の人が使う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私は、インターネットの7段階活用と呼んでおりますが、前触れは十分あります。7段階活用のまず1段階目はハードウェアのインフラ、バックボーンのところで。先ほども言いましたようにシスコの時価総額がNTTをも超えました。シスコ本体の8年前の売上高はまだ50億円で、6年前の売上高も300億円でした。そんな会社がNTTをも超えたわけです。まず線路に相当するものが劇的に普及したら、その上に旅客を乗せる電車だとか新幹線がどんどん普及して、駅ビルがどんどん発展して、新しい住宅地、新しい行楽地がどんどん生まれてくる。これはもう全く予想できることで、読み筋の中に入っているわけです。そういうインフラとして出てきました。

次にインターネット・アクセスの会社が伸びました。日本でも既に4000社になっています。そしてその上にソフトウェアのインフラ、そしてサービス、メディア、Eコマース、その片側に企業の側を助けるイントラネットというようなものが順番に栄えていく

わけです。

先ほどのヤフーの例では、100億円の投資が3年経った現在、1兆円になったわけです。なぜそういう博打ができたか。ほとんどの人から見ると博打ですが、私に言わせれば完全な読み筋です。なぜならば、7段階活用のうちのインフラのシスコがこんなに伸びている。インターネット・アクセスがこんなに伸びている。ブラウザとしてネットスケープが急激に出てきて、マイクロソフトのビル・ゲイツがそれを目指して対抗してきた。そして、いまポータルと呼ば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を整理する玄関口のようなものが絶対必要になる。こんなに火を見るより明らかなものが、なぜ皆さんは分からないのだろうと思っていたわけです。

ヤフーが公開した後、1年間ぐらいは公開の初値を下回っていました。面白いですね。最初からボーンと上がったのではないのです。アメリカですら公開して1年間は、初値よりも下の値段で買えました。ですから予言者でなくても、こういう流れを一個一個、証拠を拾い集めて、ほんの少しだけ想像を活かせば、案外いろいろなものが読めるということです。

そのヤフーのページ数の使われ方も、現在、1か月に約50億ページ読まれています。50億ページという、もう何か桁が訳の分からない数字になってき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が、しかもこの3年間で、一直線に天上知らずのような伸びを示しているのです。つまりこれは、インターネットは便利だという証拠なのです。

パワフルな 広告メディア

パソコンが生まれた当時、大人たちは「あれは子供の道具だ」と言っており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についても、「ただで情報を提供しているから儲からないよ、あれはビジネスじゃない」と、多くの大人たちが言いました。でも皆さん、身近の例をよく見てください。ラジオは情報を有料で提供していますでしょうか。ラジオのハードウェアは、松下やソニ

I SP

ーや東芝さんが作って提供しているわけですが、FM東京とかラジオ・ニッポンとかの放送局はハードを売って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コンテンツを提供しているラジオ放送局は、タダで情報を提供しているのです。では何で成り立っているのかというと、広告で成り立っているわけです。テレビも同様です。あの膨大にお金をかけて作った放送番組の内容そのものはタダで皆さんに配って、広告で成り立っているわけです。だから私はヤフーに投資する際、広告で成り立たすんだ、情報はタダで提供するんだと聞いた時に、即座に、「これだッ、これはもう十分ビジネスとして行ける。タダで情報を提供するのだから広がるし、これは成功する」と断言したわけです。ちまちまとお金を請求して取っていたならば、こんなに広がってはいないと思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に対する広告収入はものすごい勢いで伸びて、間違いなくこれはテレビの広告、新聞、ラジオの広告規模を超えると断言しておきたいです。なぜならば、テレビよりも効果があるからです。新聞よりも効果があるからです。インターネットの広告は従来のアナログ・メディアよりもはるかにパワフルです。なぜなら単に受動的に見る広告ではないからです。

テレビでクルマの広告を見て、どういう効果があるか。頭では印象で覚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翌日にクルマのディーラーに出掛けて買って買わないかもしれません。でもその日の夜のうちに買わないわけです。インターネットの広告はどうでしょう。インターネットで情報を見ていて欲しい車の広告が載っていたら、その場でボタンをクリックして買ってしまうわけです。「本当にクルマをインターネットで買うのか、そんなバカなことはないよ」と大人は思うでしょう。でも現実とは違うのです。アメリカではマイクロソフトのカーポイントだけで去年1年間で100万台もクルマを売りました。オートバイTELだけで100万台もクルマが売れる時代なのです。そんな高額商品がマウスのクリック一発で売れるのかというと、現実に売れているのです。これはテレビの広告よりパワフルです。必ずこれが分かる時代がやってくる。

予言者でなくても分かることなのです。

インターネット・セントリックな社会

インターネット革命で何が変わるのか。答は、全て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電話も変わるでしょう、保険も変わるでしょう、銀行決済も、株式の売買も、テレビも映画もラジオも音楽も郵便も、全部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

このサイバースペースでは、全ての電化製品、エレクトロニクスを使う全ての製品がインターネットにつながります。冷蔵庫も、クルマも、電子レンジも、ポケベルもつながります。インターネットによって全ての家庭が変わります。企業も変わる。教育も、政府も、研究機関も全てが変わります。

企業では、全ての人々のやりとりは電子メールを中心に行われ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私は、1日に50から100通の電子メールのやりとりをしています。電話はおそらく1日に5回ぐらいだろうと思います。私はもう完全に電子メール・セントリックです。インターネット・セントリックであり、インターネットを中心に、電子メールを中心に仕事を行っています。このように、企業の情報のやり取りが変わり、全ての在庫管理、顧客管理、財務会計などがイントラネットによって変わるでしょうし、顧客とのやりとりもEコマースでどんどんもの売っていくようになるでしょう。情報の共有化が推進され、組織もピラミッド型から水平的な組織へとどんどん変わっていくであろうと思います。政府の役割も変わっていくでしょう。

仮に私が国のリーダーならば、インターネットの高速アクセスを10年間無料にすることを決めますでしょう。例えば工業社会の中心的インフラである道路を、皆さんの車が100メートル走る都度に道路公団にお金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ならば、一体何台の車が普及するのでしょうか。どのくらい産業界が発達するのでしょうか。一部の高速道路を除いて基本道路は全部タダで走れる、何年間でもタダで

走れるというインフラを政府が中心になって提供しているから、われわれの社会生活はこんなに便利になり産業も発達したわけです。

ではなぜ、これからの21世紀の情報社会のインフラであるインターネットの道路を、どうしてタダにしないのでしょうか。私に言わせれば答は簡単です。決意する勇気が足りないからなのです。それ以外の理由は何もありません。

もしこれが10年間タダならば、日本の国の遅れは一気に縮め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全ての家庭に高速のインターネットが張りめぐらされて、全ての学校に、全ての企業に、さくさくに走れるインターネットの高速網が走らされたならば、どれほど便利になるか。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たモノの売買、Eコマースが一気に普及するでしょう。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た仮想商店街で本を買う、クルマを買う、花を買う、オモチャを買う。さまざまなものが売られるような市場が一気に普及していくでしょう。金融も変わるでしょう。さまざまなビッグバン、規制緩和がいま始まろ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が、これにインターネット・ビッグバンと金融ビッグバンの両方を掛け合わせると、世の中は信じられないような方向に変わっていくだろうと思います。

ゼロと無限大のビジネス・モデル

私どもはEトレードという会社の筆頭株主になって投資しております。ほんの3年前に株の売買を始めた頃はまだ取引がほぼゼロだったこのEトレードが、既に預かり資産で2兆5000億円になり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はセキュリティがないから危ない」などと、そんなことを言ってる人はもう完全に世の中から遅れた人です。たった一つのEトレードという会社だけでも2兆5000億円もの現金を扱い、インターネットだけを使って株の売買をしているのです。営業店舗ゼロ、営業マンゼロで、インターネットだけを使って巨額の資金が動いています。このように、銀行も全ての電子商取引も一気に変わっていく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なぜAmazon.comの時価総額が書店業界全部の会社の時価総額を足した額を超えたのか。そんなことが起きるはずないじゃないか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まだ赤字の会社だよと。なんでまだ赤字の会社が1兆何千億の時価総額になったの。

私に言わせれば、なってあたりまえです。在庫が1か所で済むからです。物理的に1000店舗あるなら、1冊の種類の書籍でも1000冊在庫が必要ですね。ところがAmazon.comだったら倉庫は1か所でいいわけです。1種類につき1冊あれば最小単位の在庫は済みます。だから生産性ははるかにいいということです。店員の数も要らない。不動産コストもかからない。ビジネス・モデルがはるかに構造的に勝っている。便利、だから儲かる。必ず儲かる。だから時価総額がつくんだと、アメリカのアナリストはプロですから、ちゃんとそのへんをきちっと計算して、どこのあたりが適切かというような判断でなされているのです。

インターネットのビジネス・モデルの特徴は、数字で言えば二つの数字で表わせます。これは私が勝手に言い出した数字ですが、一つがゼロ、もう一つが無限大です。つまり時間差がゼロ、情報劣化がゼロ、変動比がゼロ。こういうようなことで他にもいっぱいありますけれども、さまざまな特徴をゼロで表わすことができます。もう一つは無限大ですが、無限大のユーザー、無限大の在庫の種類、無限大の情報の深さ・広さ・コミュニティ、無限大のリーチなど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ます。今までの物理的世界では店舗の規模が限られている、だから有限にならざるを得ない。でも地上最大の書店がAmazon.comでできるように、地上最大の何々というものがどんどんこれからできてきます。物理的な制限がない世界、これがまさにサイバースペースです。このゼロと無限大の二つの数字の特性を一番理解して、今までのビジネス・モデルの常識を根底から引っ繰り返して考えた人が、このインターネットのビジネス界で成功を収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個人と社会の真のインタラクティブ

ヤフー・ジャパンにはマイ・ヤフーという機能があり、自分だけのための新聞を作れます。私が興味のある、例えばソフトバンクで持っている株式の銘柄を、例えば10個でも20個でも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その株式銘柄の株価が、いま現在幾らか、刻々と変わっていく数字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日経新聞だと1日に2回、しかも6時間遅れでしか分からない情報が、即時にしかも所持銘柄の合計の儲け、幾らで買って現在幾らなのか、合計の儲けや損が一瞬にして確認できます。

しかもスポーツも、私の興味のある例えばゴルフのプレーヤーの名前とか野球のプレーヤーの名前を予め入れておけば、そのスコアが即時にフロントページに出てきます。それから興味のある分野のニュースだけを抜き出して読むとか、所持銘柄についてだけのニュースを、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の海の中から全て引っ張りだして、私のためだけにちゃんと並べてくれます。天気予報も私の住んでいるところ、テレビ番組も私の住んでいるところのテレビ番組だけが表示されます。普通であれば、新聞を何ページも捲らなければいけない、あるいは見落としてしまう。テレビであればジッと待っていなければいけません、これが1ページに要約して全部が出ています。それが皆さん一人一人に全部個別化されており、しかも全部が無料なのです。

また、所持銘柄の株価が今日1日の間に10%以上上がった、あるいは10%以上下がったとするならば、自動的に教えてくれます。いま10%のラインを超えましたと自動的に教えてくれるのです。現在準備しているEトレードの次のモデルでは、その株価情報を皆さんが持っているポケベルを鳴らして教えてくれます。自動的にEトレードのコンピュータから皆さんの携帯にかけて、「あなたがお持ちのインテルの株が今日、いま現在、たった今、1秒前に10%ラインを超えました。売りますか、買いますか、そのままですか」ということを、コンピュータが音声合成で言ってくれます。

もし新聞を、あるいは証券の営業マンが、それほど一人一人の個別化をしたならば、一体どれだけの人件費がかかるでしょうか。しかも一瞬を逃さずに教えることができるか。それは、あり得ないことです。インターネットだから初めてできることなんです。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た株の売買、あるいはニュースのやりとり、これは安いから広が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便利だから広がっているのです。その上、値段も10分の1と、だから広がるのです。あたりまえですね。単なるブームやまやかしいのではないのです。

だいぶ独断と偏見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ここで私の話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ご清聴、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99갑 A 련맹전 길림오통팀 명단

직무/번호	이름	키(m)	체중(Kg)	출생년월	위치
감독	고훈(코치 겸함)				
지도	조영원				
지도	김광수				
지도	유동구				
의사	박철산				
1	고수춘	1.92	81	1978.4	키퍼
2	남호	1.80	74	1977.9	수비
3	리광호	1.86	70	1971.9	수비
5	왕광위	1.80	73	1978.1	수비
6	왕해과	1.78		1974.1	하프
7	정동철	1.76	68	1978.6	하프
8	현춘호	1.76	73	1975.10	하프
9	줄라	1.70	65	1970.8	공격수
10	테니	1.83		1976.	공격수
11	천학봉	1.71	64	1977.7	하프
12	문광혁	1.77	70	1977.11	하프
13	황동춘	1.76	70	1972.2	공격수
15	김청	1.70	65	1977.11	하프
17	우용	1.87		1977.5	공격수
18	오영군	1.78	68	1978.10	하프
19	학위동	1.80		1968.5	수비
20	리찬길	1.73	75	1972.2	공격수
21	김룡택	1.75	65	1977.3	하프
22	고종훈	1.76	74	1965.1	하프
26	오근룡	1.78			수비
27	장경화	1.75	75	1971.8	수비
28	김룡산	1.75	68	1977.	수비
29	블라이마	1.81	78	1969.1	키퍼
30	진강	1.87			키퍼

編集手伝いボランティア募集

천지인문편집부에서는 잡지편집
에 흥취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을 잡지편집 보조인원
로 모집합니다. 한달에 반달이라도
좋고 하루라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편집부에 전화 혹은 팩스로
연계해주시기 바랍니다.

日・中・韓対照言語研究会 会員募集

1. 研究会の主旨

同じ漢字圏に属する日・中・韓三カ国語は語彙、文法などにおける類似点が少なくなく、相互に学びやすい側面がある一方、似て非なる語や表現も多く、却って相互の言語習得に支障を来す場合が多々ある。このような問題を対照研究を通して正確に突き止め、学習者の便宜を図ることの重要さはあまりにも明白なことである。

対照研究はまずその研究対象となる言語に熟達することが前提となるが、現在日本にいる中国朝鮮族の中には日・中・韓三カ国語を自由自在に使いこなし、微妙なニュアンスまで正確に捉えることのできる人材が少なくない。この、天の恵みとも言うべき語学のパワーを思う存分に発揮し、三カ国語の学習者のために尽くすことは私たちの避けることのできない神聖な義務でもあり、研究者としての職責でもある。

2. 研究会の名称

当研究会の名称は「日・中・韓対照言語研究会」する。

3. 会員の資格

- a, 日・中・韓三カ国語に熟達している者
- b, 大学本科で語学を主専攻した者
- c, 語学研究にある程度の経験を有する者
- d, 所定の会費（年間3,000円）を納める者
- e, 当研究会の主旨に賛同する者

4. 研究活動と内容

- a, 毎月定期的に研究会を開く。
- b, 日・中・韓三カ国語に関する学習・研究誌を発行する。
- c, 「日本語教師のための三カ国語用例辞典」（仮称）を作る。
- d, 「日・中・韓漢語比較辞典」（仮称）を作る。
- e, 「諺と民族の智慧」を定期的にホームページに掲載する。
- f, 「日・中・韓漢語の話」を定期的にホームページに掲載する。

5. 入会申込

FAX(03-3592-9064)または郵便で履歴書とともに研究歴を送ってもらい、審査にパスした者には改めて入会申請書を郵送する。入会申請書を受領後は指定の期日まで申請書とともに会費を納入するものとする（会費は研究会のお知らせ、語学雑誌の発送などにかかる費用に充てる）。

「日・中・韓対照言語研究会」準備委員会 担当：李東哲

連絡先：〒103-0005港区西新橋2-13-16 多田ビル4f 電話：03-3592-9005

fax：03-3592-9064

【「天池人文」独立案（草案）】

これまで日本在住の中国朝鮮族の親睦団体である「天池倶楽部」が編集・発行してきた月刊誌「天池人文」雑誌をより効率的に運営・発展させ、日本に在住する中国朝鮮族の真のメディア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ために、日本に在住する朝鮮族で、編集経験を有し、この任に堪える個人に任せ、独立経営するものとする。

- 1、雑誌名は発行・編集者が決めるものとする。但し、中国朝鮮族の特徴を表わすことのできる呼称が望ましい。
- 2、雑誌は、正式な出版物として発行するまでは今までのとおり、A4三十ページ立てで毎月の二十日に発行する（但し、場合によっては合併号を発行することを可とする）。
- 3、雑誌は「天池倶楽部」から独立しても、その内容は日本に在住する中国朝鮮族をはじめ、朝鮮半島や在外朝鮮民族に関する政治、経済、文化、生活などを反映した総合誌という原則から逸脱するものではない。
- 4、雑誌の運営資金：
 - a、日本に在住する中国朝鮮族を中心に、中国朝鮮族に関心のある有志による寄付金（雑誌の発展ビジョンに立ち、寄付金は株式形式を取り、寄付者は雑誌社の株主となる。一株の額面は一万円とする）。
 - b、雑誌購読料（一部三百円、年間購読料は三千円）。
 - c、広告料（株主および中国朝鮮族は半額）。
 - d、その他の収入

*現状では編集・発行者の一人歩きは難しく、毎月印刷や発送およびその他にかかる最低の費用援助が必要である（毎月五万円）。そのために、天池倶楽部の有志をメーンに後援会を発足させ、最初の一年間（一年後はその時の運営状況を見て援助金額を決める）は運営資金を後援会から提供してもらう形とする）。
- 5、雑誌の内容などについては、上記3の原則を逸脱しない限り、発行・編集者に一任し、外部からの干渉を受けないものとする。
- 6、株形式の寄付金は雑誌社が完全に一人歩きできるようになれば、自由に売買できるものとする。
- 7、以上の諸条件で雑誌の発行・編集を引き受ける意思のあるものは、天池倶楽部の理事会に申請し、理事会から資格審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審査が通った者は再度雑誌編集方針や発展ビジョンを文面で作成し、天池倶楽部理事会と後援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8、この独立案はできるだけ早い段階で実施するものとし、遅くとも天池倶楽部理事会の理事改選前が望ましい。

&賛助会員を募ります&

「天池人文」は日本に在住する中国朝鮮族の自主団体「天池倶楽部」が発行する月刊誌です。雑誌刊行の費用はこれまで会員の会費や寄付によって賄ってまいりましたが、昨年10月期（第18期）をもって増ページしてからコピーや郵送にかかる費用が前より倍以上増額し、維持費用に苦勞しています。

ご存じの通り、中国朝鮮族が留学などで大挙日本に来るようになったのはせいぜい5、6年前からです。今日本に在住する朝鮮族の中には企業や大学などに就職している人も一部いますが、大学、専門学校や日本語学校に留学している人が大多数でほとんど経済的なゆとりはありません。従って、急に会費をあげたり、購読料を取ったりするのも現段階ではあまり望ましくありません。できるだけ経済的に負担がかからない程度で入会してもらい、朝鮮族同士や朝鮮族に関心のある日本人およびその他の方々と親睦を図り、情報を交換するのが集まりの目的の一つだからです。

そこで、国籍や民族を問わず、天池倶楽部に興味があり、物心両面で協力していただける方々を賛助会員として募る次第であります。賛助会員は個人の場合、一口1万円、法人の場合は一口3万円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賛助会員は天池倶楽部の例会やその他の集まりに参加する資格があり、会員と同様「天池人文」の無料配布を受けられます。また、「天池人文」に每期賛助会員のお名前を記載致します。賛助会員になっていただける方は、今期「天池人文」に折り込みの郵便振込票で会費を振り込むか、または編集部までご連絡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ご協力のほど、お願い申し上げます。

「天池人文」編集部より

「天池人文独立案」についての補充意見

- 1、「天池人文独立案」を基本的に賛成する。
- 2、雑誌名は編集者が提案し、株主たちが最終的に決定する。
- 3、株主が即ち後援者である。株主の資金によって雑誌を運営する。
- 4、天池倶楽部の理事会、「天池人文」編集委が独立案に賛成し、天池倶楽部例会で賛成多数となれば株主会を発足して在日本中国朝鮮族のメディアとして正式スタートする。
- 5、運営資金は月平均5万円必要だとすれば、最低2年間の資金120万円を株主が出資する約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李 東哲（遼）

1999年度

①天池クラブ会費納入者名簿、②「天池人文」購読料納入済者名簿、

②「天池人文」後援者名簿 6月20日現在

*皆様のご支援、ご協力に感謝致します。記入漏れなどございましたら、

TEL: 090-4124-4528 (朴鶴) までお電話お願いします。

「天池倶楽部」会費交納者名簿 (1000、3000 日元):

李 东伟 朴 鶴 黄 正浩 蔡 秀范 韩 学峰 金 尚太 林 东浩 金 炳哲 文 哲
刘 正爱 曹 海石 尹 昌洙 赵 龙淳 金 淳灿 郑 杰 朴 静霞 朴 华 李 海燕
李 东哲(沈阳) 金 光林 朴 锦华 金 万寿 朴 元日 金 勇男 宋 虎岩 陈 万哲
姜 春姬 姜 永一 YAMAGUCHI. SA

「天池人文」購読費交納者名簿 (3000 日元):

宮川淳 崔康太 金龙喜 韩春锡 蜂須賀光彦 甘明植 舘野哲 陈万哲 黄正浩
李明杰 扬光日 李东哲(沈阳) 朴鶴 金尚太 金信敬 金万寿 宋虎岩 金勇男
金光林 金炳哲 李鋼哲 林久美子 上野善弘 丁 章

1999 年度「天池人文」後援者名簿 (7000 日元):

蜂須賀光彦 (1万円) 林久美子 朴 鶴 金 尚太 金 信敬 金 万寿 宋 虎岩

天池倶楽部第 52 回定例会通知

中国朝鮮族が来日して以来、およそ 10 年の歳月が流れました。その先輩たちもいよいよ日本での地位を築き上げつつ、在日中国朝鮮族も日本での一勢力としてその脚光を浴びるようになりました。天池倶楽部も活動を始めて以来ただ一度休むことなく 5 年目を迎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は、在日朝鮮族の皆さんの多大なご協力とご関心のシンボル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日本での成功、仕事面での手助けとなるべく天池倶楽部ではコンピュータ講座を今年で 2 回開き、皆さんの好評を得ました。これからも皆さんに有意義な活動を組織、運営したいと思います。善い思想も実行しなければ善い夢と同じです。皆さんが持っている知識を天池倶楽部で発表してください。このような趣旨で 6 月の定例会は、在日朝鮮族の技術交流の場として、ポスター発表会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下記のパログラムで行う予定ですが未定の方が多いため、冒頭の挨拶と発表が終了すると自由討論にしたいと思います。

記

1. 名称: 在日朝鮮族科学技術交流大会
2. 場所: 東京都文京区役所 3F 会議室 A
3. 時間: 6月27日(日曜日) 午後 6:30 ~ 9:20
4. 発表時間: 一件 10 分 質疑応答 5 分
5. ポスターサイズ: A4 紙縦書きで横 3 枚、縦 3 枚 計 9 枚を連結
6. 関連資料は各自 20 部用意してください。
7. タイトル告知: 6月10日まで

プログラム

1. 6:30~6:45 挨拶 金 炳哲
2. 6:45~7:00 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モデルによる溶接溶融池形状と冷却時間の推定・制御 金 炳哲
3. 7:00~7:15 未定 朴 炳湖
4. 7:15~7:30 未定 李 東偉
5. 7:30~7:45 未定 宋 虎岩
6. 7:45~8:00 未定 金 万寿
7. 8:00~8:15 未定 韓 学峰
8. 8:15~8:30 未定 朴 鶴
9. 8:30~8:45 未定 朴 元日
10. 8:45~9:00 未定 韓 春錫
11. 9:00~9:15 顔部品の形状と配置に関する固有空間を利用した似顔絵の自動生成 徐光哲

북경 생활비수준 세계13위

최근 영국의 경제단체인 EIU가 세계 123개 도시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주요 도시별 생활비 조사》가 발표됐다. 경제위기에 빠진 우리 나라 도시들은 더욱 생활비가 많이 들어 북경은 세계 13위로 아세아에서는 네 번째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로 꼽혔다.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의 1, 2, 3위는 모두 아세아 지역 도시인 도쿄, 오사카, 홍콩이 차지했다. 4위에서 12위까지의 도시 생활비가 많이 들기로 악명 높은 주리히, 파리, 오슬로 등 서구 라파 도시들이 차지했다. 서구 테레와 리스본이 가장 생활비가 적게 들었다. 루블라가치의 폭락을 겪은 모스크바는 88위. 미국에서는 14위를 차지한 뉴욕이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었고 아틀란타는 98위로 생활비가 가장 저렴하게 드는 도시로 조사됐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드는 도시는 1위를 차지한 가봉의 리브르빌. 남미 국가의 도시 중 4분의 3이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도시군으로 분류됐다. 아세아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로 서울을 비롯한 아세아 도시의 생활비 수준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년 전의 33위에서 52위로 내려섰으며 시드니도 26위에서 67위로 떨어졌다. 부터 5개로 줄었다. (2001)

韓国映画鑑賞会

日時: 6月22日 題名: 301/302 監督: 朴哲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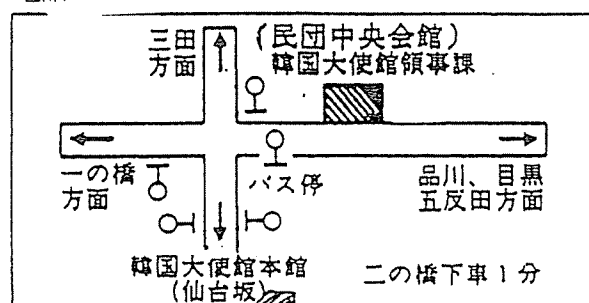
場所: 韓国文化院ホール 港区南麻布 1-7-32 電話: 03-5476-4971

入場料: 無料 (先着 150 名)

交通: 都バス「二の橋」下車すぐ

(新橋、渋谷、五反田、目黒、神谷町、広尾、虎ノ門、大門、芝公園などから乗車可能)

* 朴監督の名作です。ぜひ鑑賞してください。



天池人文

천지인문

CHONJI CULTUER

日本在住の中国朝鮮族が作る月刊文化・生活総合誌

일본에 사는 중국조선족들이 만드는 유일한 잡지

在日中国朝鮮族办的独一无二的杂志

欢迎订阅天池人文

천지인문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購読を歓迎します

1部300円、年間購読料3、000円。申込は「天池人文」編集部まで電話またはFAXで。

毎月20日発行

編集部：〒105-0003 東京都港区西新橋2-13-16 多田
ビル4F-A 日・中・韓語学研究所内
TEL／ 03-3592-9005
FAX／ 03-3592-9054

発行：天池倶楽部 CHONJI CLUB

編集委員：金炳哲、金万寿、金光林、陳万哲、李東哲（吉林）